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분양가 뛰나

원자재값·금리 인상 총사업비↑ 시·건설사, '줄다리기' 재협상 최대 50% 요구...상승폭 촉각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원자재값 상승,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사업 대상지에 들어서는 아파트 분양가가 일제히 오를 것으로 보여 상승폭 등에 관심이 쏠린다.

시 수행하는 신용공원 특례사업 타당성 검증 영역이 다음 달 완료될 전망이다. 영역은 총사업비 검증 과정으로 광주시와 건설사는 그 결과를 토대로 적정 분양가를 다시 산출하게 된다. 애초 이곳 평당 분양가는 1.020만원으로 잠정 합의됐지만 93억원으로 예상된 토지 보상비부터 170억원으로 뒀다 최근 자재값 폭등으로 총사업비도 늘어나게 됐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 중인 광주 9개 공원, 10개 지구 모두 사정이 비슷해 사업자들은 분양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규모가 가장 크고 평당 분양가(잠정 1,870만

원)도 가장 비싼 중앙공원 1지구는 후분양 결정에 따라 다소 미룬다 해도 나머지 9개 지구는 순차적으로 분양가를 다시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광주시도 사업 추진 초기와 비교해 시장 환경이 바뀌었다면 인상 요인을 인정하고 있다. 광주시와 건설사들은 협약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업자의 신청을 거쳐 논의하기로 협약 당시 합의했다. 평당 분양가는 중앙공원 1지구를 제외하면 1,000만~1,500만원 범위로 일반 신축 아파트보다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업체들 사이에는 20~30%, 많게는 50%가량

분양가를 올려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는 인상 폭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남대 산학협력단, 조선대 산학협력단, 광주 전남연구원의 사업지별 타당성 검증 결과를 토대로 한 협상에서 광주시와 업체 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사업자 공모 당시 낮은 금액을 제시했다가 공사, 분양을 앞두고 가격을 올리려는 업체들의 움직임에 시민사회에서는 분양 원가 공개도 요구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 질의 결과 주택법상 공공택지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타당성 검증뿐 아니라 한국 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와 회계사 등 전문가로 꾸려진 검증단을 통해 적정 분양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대상 부지를 건설사가 모두 매입한 뒤 공원을 조성해 광주시로 넘기고 비 공원 시설인 아파트 등을 지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2017년 사업 논의가 시작된 이후 시는 오는 2025년까지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은 크게 2단계(1단계: 수량, 마르, 송암, 봉산·2단계: 중앙1, 중앙2, 일곡, 운암산, 중외, 신용)로 나눠 진행중이며 기존 공원 면적 모두 789만 7,000여㎡ 가운데 76만 1,000여㎡(9.6%)가 아파트 등을 건립하는 사업 용지로 활용된다. /김용현 기자



도농상생 자원의료봉사 26일 오전 장성 삼서농협에서 경희대학교 의료봉사 동아리 녹수회가 '도농상생 자원의료봉사활동'으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침치료, 부항, 혈압 측정 등의 의료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김성훈 기자

민주 전남도당위원장 신정훈 의원 합의추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에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합의추대 됐다. 전남 최다선(3선)인 이개호 의원과 김승남 현 도당위원장, 신정훈·윤재갑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신 의원을 신임 도당위원장으로 합의추대 했다. 전남도당위원장을 두고 그동안 재선인 신 의원과 초선인 윤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합의추대론과 경선으로 의견이 양분돼 있었다. 신 의원은 지난해 8월 도당위원장 선거 당시 김승남 의원에게 양보하고 출마를 포기했다. 당시 전남지역 의원들은 김승남 의원을 합의추대 하면서 차기 도당위원장을 신 의원이 맡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윤 의원이 향후 지역구 개편이나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당위원장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변수로 떠올랐다. 이 과정에서 주철현 의원 등 일부 동부지역 의원들이 이에 동조하면서 경선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이개호 의원과 서삼석 의원의 적극적인 인준으로 합의추대가 이끌어 냈다. 신 의원은 "당원들의 권리와 역량을 키워 민주당의 위기극복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전남 수산가공품 생산액 2년 연속 '전국 1위'

1조6,773억...전년비 11% 증가
지난해 전남지역 수산가공품 생산액이 전년보다 11%(1,637억원) 늘어난 1조6,773억원을 달성,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생산량도 전년보다 1,000톤 증가한 29만 8,000톤을 기록했다. 전남지역 수산가공품 업체는 1,646곳으로 전년보다 10곳이 늘었다. 업체당 평균 생산액은

10억1,900만원으로 조사됐다. 해조류 전체품 제조는 지난해보다 6% 감소한 반면 냉동식품 제조는 7% 증가했다. 종사자 수는 7,117명으로 코로나19 등으로 541명이 감소했다. 전남지역 수산가공품 생산액은 지난 3년간 연평균 14%씩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와 조기 등의 작황이 부진했으나, 이로 인해 산지가격이

오른데다, 대형 소매점의 할인행사 등으로 수요가 늘면서 생산액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는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수산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제2차 수산가공·유통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가공·유통 분야별 6대 중점 추진전략과 93개 사업을 발굴해 총 8,404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오선우 기자

도, 도민안전공제보험 홍보·지원 강화

전남도가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피해를 본 도민의 조기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도민안전공제보험' 홍보와 지원 범위를 강화한다. 전남도는 그동안 도내 전입 시 보험 자동 가입 안내문자 발송을 비롯해 마을 홍보 포스터·현수막, SNS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민안전공제보험 제도를 홍보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도민들이 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대부분 인지하고 있으나, 막상 사고가 발생하면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보험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경찰청, 소방서, 병·의

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매월 시군 사고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를 개인정보 동의를 얻어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직접 연결해 안내하는 시스템을 마련 중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익사사고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후유장애 등 11개다. 전남도는 도민의 보장 수혜를 늘리기 위해 개 물림 사고, 감염병 치료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고에 대한 보장항목 추가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오선우 기자



www.dasco.kr

창조와 혁신을 통해 100년 기업으로!!

다스코(주)는 흥익인간의 이념과 정신을 계승하여 생명을 존중하고 고객이 감동하며 보람을 공유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 매출 5,000억원 목표



SOC사업

가드레일 / 교량난간 / 터널 방음벽 / 방음벽



신재생 e.사업

육상태양광 / 수상태양광



건축자재사업

합판탈형 데크플레이트 / 스틸 데크플레이트
경질우레탄폼 단열재



WBM사업

구조용 선조립 / 용접철근(WBM)
BIM모델링

신기술 개발 선도업체 다스코가 4차산업을 주도하겠습니다.

본 사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동농공길 26-2 TEL. 061)370-2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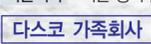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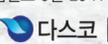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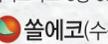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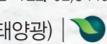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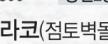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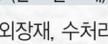
서울지사 서울 송파구 법원로 9길 26 H비즈니스파크 C동 801호 TEL. 02)3440-7800

당진1공장 (데크플레이트)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면천로 1361-15 TEL. 041)431-8200

당진2공장 (단 열 재)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합덕산단1로 50 TEL. 041)431-8259

영 남 지 사 부산시 동구 초량동로 29 KCA빌딩 405호 TEL. 051)518-3702

새만금공장 (WBM)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산 블럭 2로트

 다스코 |  쏠에코(수상태양광) |  세라코(점토벽돌, 외장재, 수처리) |  가스코(가드레일, 교량난간) |  스틸코(철근유통·가공) |  학교법인홍익학원(영산중·고등학교) |  흥인(부동산 임대업)